

지역대학·기업·공공기관과 연계한 전주형 시민 평생교육 인증과정 운영

- 전주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주요 업무로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록강사 일자리 매칭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도 지역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교육 자원을 시민의 일상 속 학습으로 확장하기 위한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 이제는 이러한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전주시가 지역대학,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전주형 시민 평생교육 인증과정”을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정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도 지자체가 지역산업과 지역주민의 학습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대학·기업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성인의 재교육·향상교육을 담당하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과 기업-대학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향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전주시는 기존 취미·교양 중심 평생교육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직무전환, 재취업, 창업, 문화관광 활동, 디지털 역량, 지역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실용형 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제안 내용

- 전주시가 전북대, 전주대 등 지역대학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 문화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관광·콘텐츠 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대상 **단기 인증과정, 마이크로 강좌, 직무전환 교육, 문화관광·로컬콘텐츠 교육**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과정은 단순한 일회성 특강이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수료하면 전주시장 또는 전주시·대학 공동명의로 수료증을 발급하고, 일부 과정은 지역 일자리, 창업, 마을활동, 자원봉사, 강사활동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 운영 방향

- 전주형 시민 평생교육 인증과정은 다음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운영 내용
운영 주체	전주시·전주시평생학습관 총괄, 지역대학·기업·공공기관 공동 운영
교육 방식	4주·8주·12주 단기 과정, 야간·주말·온라인 병행
인증 방식	수료증, 디지털 배지, 마이크로 인증, 포트폴리오 발급
대 상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소상공인, 은퇴자, 문화예술 활동가, 마을활동가
연계 분야	재취업, 직무전환, 창업, 디지털 역량, 문화관광, 로컬콘텐츠, 사회공헌
운영 장소	대학 강의실, 동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기업 교육장
성과 관리	수료율, 취업·창업 연계, 동아리 형성, 지역활동 참여, 만족도 공개

□ 주요 과정 제안

1) 시민 디지털·AI 역량 과정

- 지역대학의 IT·컴퓨터·미디어 관련 학과와 협력해 시민 대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성형 AI 기초 활용
 - 스마트폰·공공앱·온라인 민원 활용
 - 엑셀·문서작성·데이터 기초
 -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홍보와 스마트스토어
 - AI를 활용한 보고서·홍보물·영상 제작
 - 디지털 사기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
- 전주시는 이미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전주시민의 디지털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생활 디지털 교육’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교육을 단기 인증과정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중장년 직무전환·재취업 과정

- 50+ 세대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전직, 사회공헌 활동을 준비하는 교육을 운영해 주십시오.
- 예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장년 커리어 재설계
 - 사회복지·돌봄 활동가 기초
 - 마을강사·평생학습 활동가 양성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창업 기초
 - 지역문화 해설과 마을기록 활동
 - 안전관리, 시설관리, 생활지원 서비스 직무교육
- 이 과정은 단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전주시 일자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복지기관, 문화기관과 연계해 실제 활동 기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3) 문화관광·로컬콘텐츠 과정

- 전주는 한옥마을, 전라감영, 경기전, 전주국제영화제, 한식, 한지, 한복, 국악

등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가진 도시입니다. 전주시 공식 관광 누리집도 미식여행, 스토리관광, 무장애여행, 축제·공연·전시, K-푸드, K-소리, K-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자원을 시민 평생교육과 연결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전주 역사문화 해설 기초과정
- 전주 음식문화와 로컬푸드 콘텐츠 과정
- 한옥마을 관광서비스 시민아카데미
- 무장애 관광 안내 활동가 양성
- 전주 영화·영상 콘텐츠 기획 과정
- 마을기록, 생애사 쓰기, 골목문화 아카이빙
- 전주형 로컬브랜드·굿즈 기획 과정

○ 이러한 교육은 시민에게는 새로운 배움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전주시에는 문화관광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창업 역량 과정

○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전형 평생교육도 필요합니다.

○ 예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회계·세무 기초
- 온라인 마케팅과 SNS 홍보
- 고객 응대와 서비스 디자인
- 로컬브랜드 만들기
- 전주형 관광상품 기획
- 메뉴 개발, 포장 디자인, 온라인 판매
- 상권 데이터 읽기와 매출 관리

○ 이 과정은 지역대학 경영·디자인·관광·식품 관련 학과, 소상공인 지원기관, 전주시 상권 관련 부서가 함께 운영하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5) 공공기관 연계 시민역량 과정

○ 시민이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계 교육도 필요합니다.

○ 예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민실천 과정
- 생활안전·재난대응 시민교육
- 건강도시와 생활건강 관리
- 주민참여예산·마을계획 교육
- 시민 인권·노동권·소비자 권리 교육
- 고립가구 발굴과 이웃돌봄 활동가 교육

- 이 과정은 전주시의 시민주권 행정과도 잘 맞습니다. 시민이 단순 민원인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 평생교육과의 차별점

- 이 제안은 기존 평생교육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더 실용적이고 지역연계형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평생교육	전주형 대학·기업 연계 평생교육
취미·교양 강좌 중심	직무전환·재취업·창업·지역활동 연계
기관별 개별 운영	전주시·대학·기업·공공기관 공동 운영
수강 후 종료	수료증·디지털 배지·포트폴리오 제공
강좌 참여 중심	학습 후 동아리·일자리·사회공헌 연결
공급자 중심 개설	지역 수요조사 기반 과정 설계
단기 만족도 평가	수료율, 활동 연계, 지역 기여도 평가

□ 운영 체계 제안

- 전주시가 매년 “전주형 평생교육 협력과정 공모”를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 첫째, 전주시가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교육 분야를 정합니다.
- 둘째, 지역대학, 기업, 공공기관, 문화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과정을 제안합니다.
- 셋째, 전주시평생학습관이 과정의 공공성, 실용성, 지속가능성을 심사해 선정합니다.
- 넷째, 선정된 과정은 전주시민에게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하고, 수료자에게 공동명의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다섯째, 우수 수료자는 학습동아리, 마을강사, 자원봉사, 인턴십, 창업지원, 지역 프로젝트와 연결합니다.

□ 기대 효과

- 이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대학 수준의 전문 교육을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실무역량을 키우고, 중장년은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준비하며, 은퇴자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과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문화예술 활동가는 전주의 문화자원을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역대학은 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고, 기업과 공공기관은 필요한 지역인재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평생교육을 복지 차원의 교육을 넘어 일자리, 문화관광, 지역경제, 시민참여를 연결하는 도시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제안

- 전주시는 이미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단기 특강이나 기관별 사업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전주형 시민 평생교육 인증과정”을 체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가 지역대학, 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시민 대상 단기 인증과정, 마이크로 강좌, 직무전환 교육, 문화관광·로컬콘텐츠 교육을 운영한다면, 평생학습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 전주시가 ‘배움-일-문화-지역활동’이 연결되는 지역대학·기업 연계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